

고난을 통한 위로

찬양해요

찬송가 321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20:1-12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한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디베 사람 가이오와 밋 디모테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 이해하기

에베소의 소동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2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그리스에 머물렀다. 3차 전도여행의 반환점을 돌며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3개월의 체류 기간 동안 바울은 서신서를 집필하고 교회를 돌보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로 이동하여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강론합니다. 한편 유두고는 바울의 강론을 듣다 졸아서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은 그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유두고의 졸음을 영적 게으름으로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의의 사고가 잠시 교회에 절망을 주었지만, 유두고의 소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은 데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회복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 마케도니아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서

2. 바울은 자신의 강론 때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하였습니까(10-11절)?

▶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 그에게 있다 하고

3.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12절)?

사람들이 적지 않은 를 받았습니다

4.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5. 힘든 일을 겪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